

통계물리학으로 바라보는 복잡한 세상

Beom Ju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잠깐 눈을 들어 창밖을 보라. 파란 하늘, 그 위를 떠다니는 하얀 구름이 보인다. 정말 아름답다. 왜 하늘은 파랗까,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물리학자는 대상을 물리학의 눈으로 보고, 물리학의 방법으로 질문하고, 또 물리학적 답을 찾는다. 다시 눈을 들어 파란 하늘을 보자. 하늘 어디에도 “여기는 물리학의 영역이니 물리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출입금지”라는 뜻말이 세워진 경계는 없다. 똑 같은 파란 하늘을 보아도 인문학자가 묻는 질문은 사회과학자의 질문과 다르다.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이라는 구분은 하늘에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각각 독특한 눈으로 사회를 보듯이, 물리학자도 사회를 본다. 좀 별다르게 말이다. 오늘강연에서는 사회현상을 물리학자가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